

9-7-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이사야 25:1-8

말씀제목: 이사야를 통하여 휴거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실 것을 예언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먼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에 그분께서 사망을 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사 25:8)

성령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휴거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안에 있었던 사망을 승리 안에서 삼키실 것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 속에서 주님께서서는 앞으로 있게 되는 휴거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요 11:25-26)

사도 바울은 휴거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승리 안에서 사망을 삼키시는 일을 하실 때 나타나는 신비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감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키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전 15:54)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시며 승리를 주시는 일과 이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앎이니라.”(고전 15:55-58)

또한 그는 휴거가 일어나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살전 5:1-8)

그는 우리가 대 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될 것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살전 5:9-11)

우리는 휴거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자의 말이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게 되는 때에 대하여 그 날이 아주 가까이 우리 목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년 9 월 23-25 일 사이에 유엔 총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two state solution 이 가결된다면 그들 모든 나라들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자신들이 이루었다고 외칠 것이 분명해 진 때에 와 있습니다.

온 세상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나누어 살도록 팔레스타인을 국가를 인정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모의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날의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날이 오게 될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 날들과 그 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흠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을 3:1-2)

아멘! 할렐루야!